

MESOPOTAMIA

Photo Gallery

창랑한 부활 꿈꾸는 고대문명



메소포타미아

| 글 | 이종호 · 프랑스 페르피낭대 공학박사 |

jhlee@mediafree.co.kr |

| 사진 | GAMMA |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에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인간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 지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라면 일반적으로 서아시아 거의 전역을 가리키며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이 포함된다. 현재 각국에서는 이들 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라크에서는 바빌로니아의 영광을 알려주는 바빌론, 이란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페르세폴리스를 복원하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원통형 인장을 점토 위에 돌려 찍은 후 봉인해 자신의 소유권임을 선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토기에도 인장을 찍었다. 동양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이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복원중인 바빌론, 기원전 6세기경을 전후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이 절정에 달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 바빌론



바벨탑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다. 이 탑은 7층으로 높이가 90m며, 8천5백만개의 벽돌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의 왕국이 들어선 것은 기원전 1830년경으로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들이 바빌론시를 중심으로 '고(鐵)바빌로니아'로 불리는 제1왕조를 세우면서부터다. 이들의 수도 바빌론은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가 된다. 바빌론은 수많은 정복자들에 의해 정복, 파괴, 약탈됐지만 그때마다 다시 복원됐다.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기원전 6백5년-5백62년)가 바빌론을 사상 최대의 성곽을 가진 도시로 건설해 그 세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당시 바빌론에는 위대한 신들을 위한 신전 53개, 마르둑신을 위한 예배당 55개, 대지의 신들을 위한 예배당 3백개, 하늘의 신들을 위한 예배당이 6백개가 있었으며, 여러 신들을 위한 제단이 4백개가 있었다. 이 중에는 '신의 문'이라는 뜻의 바벨탑이 있었는데, 이 탑은 7층으로 높이가 90m며 8천5백만개의 벽돌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나보포라싸왕은 '마르둑신이 나에게 에테메난키(바벨탑)의 기초를 지구 중심까지 닿도록 단단하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래야만 하늘까지 오를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적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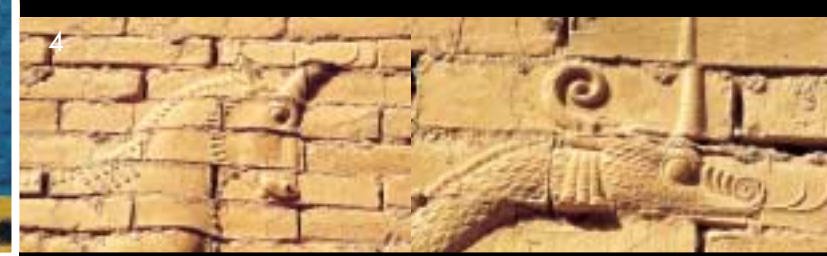
사담 후세인은 바빌로니아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 수백만장의 벽돌을 구웠다. 벽돌마다 '네부카드네자르왕의 바빌론이 후세인 시대에 재현되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MESOPOTAMIA

바빌론



2 뉘우(節獸)의 신 아다드의 황소. 구운 벽돌 위에 채색유약을 칠한 짐승들의 부조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시대의 특징적인 양식이다. 3 복원된 이슈타르문. 원본은 콜데바이에 의해 독일로 옮겨져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 문은 의식용 문인데다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괴를 면했다. 4 이슈타르문의 높이는 14.3m나 되며, 동물을 포함한 5백75개의 각종 조각들이 있다. 그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각종 상상의 동물 모습.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포함

바빌론은 거의 2천년 동안 황폐해진 상태로 방치됐다가 1899년부터 1917년까지 독일인 콜데바이에 의해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 바빌론은 이 중 성곽으로 돼 있는데 외각 성벽은 양변이 1천8백m와 1천3백m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이다. 헤로도투스는 이중으로 된 바빌론 성벽이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달리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넓었다고 적었는데, 콜데바이의 발굴로 이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바빌론은 지구상에 알려진 고대의 성 가운데 가장 크고 장대한 성이었으며, 여기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공중정원은 중세시대에 파로스 등대로 바뀌기 전까지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도 포함됐다.

바빌론에는 사자의 그림이나 조각이 많은데 이는 사자를 여신 이슈타르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이슈타르문'은 내성 입구에 있는데 웅과 기괴한 장식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서있는 이슈타르 성문은 원래의 것이 아니다. 콜데바이가 독일로 가져가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 전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슈타르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유명한 공중정원이 있다(과학동아 2000년 12월호).

1978년부터 이라크는 '국민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 네브카드네자르 왕의 바빌론을 다시 건설한다'면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유명한 공중정원도 조만간 제 모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 '동물의 왕'인 사자는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를 상징하므로, 네부카드네자르왕의 궁전을 비롯한 성벽 곳곳에 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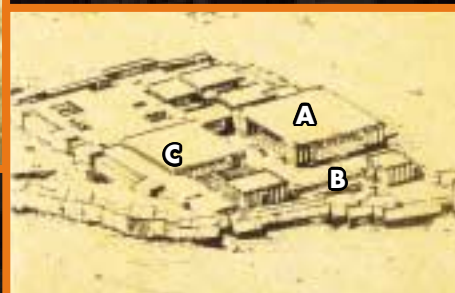
사상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의 패자로 등장한 페르시아 왕국은 처음에 우르미아 호수 서남쪽에서부터 힘을 길러 리디아의 크로에수스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다. 유명한 다리우스 1세(재위 기원전 5백22년~4백86년)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키로스(재위 기원전 5백59년~5백30년)의 인척으로 각국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고 명실공히 대제국의 왕으로 군림한다. 다리우스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 공물과 세금을 거뒀으며, 이를 위해 총 2천6백98km에 달하는 '왕의 길'을 건설했다. 중간 중간에 가장 빠른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역참이 1백11장소가 있었는데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긴급한 서류가 1주일 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국의 안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페르시아를 사상 최고의 제국으로 만든다.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이른바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 그리스에 패배한다. 전쟁의 결과로만 따지면 결코 대제국의 기초를 뒤흔들만한 큰 사건이 아니었다. 페르시아 전쟁에 패배한 후에도 1백50년 동안 계속 왕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리우스 3세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난 알렉산더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와 정면 승부를 하다가 기원전 3백30년 이란고원에서 자살함으로써 페르시아 대제국은 영원히 막을 내리고 알렉산더로 하여금 세계의 패자가 되도록 한다.



페르세폴리스의 복원도
A. 아파다나 궁 B. 크세르크세스의 문
C.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의 궁전



페르세폴리스의 전경. 길이 4백50m, 폭 3백m로 공간이 라기 보다 궁전 속의 대도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MESOPOTAMIA

페르세폴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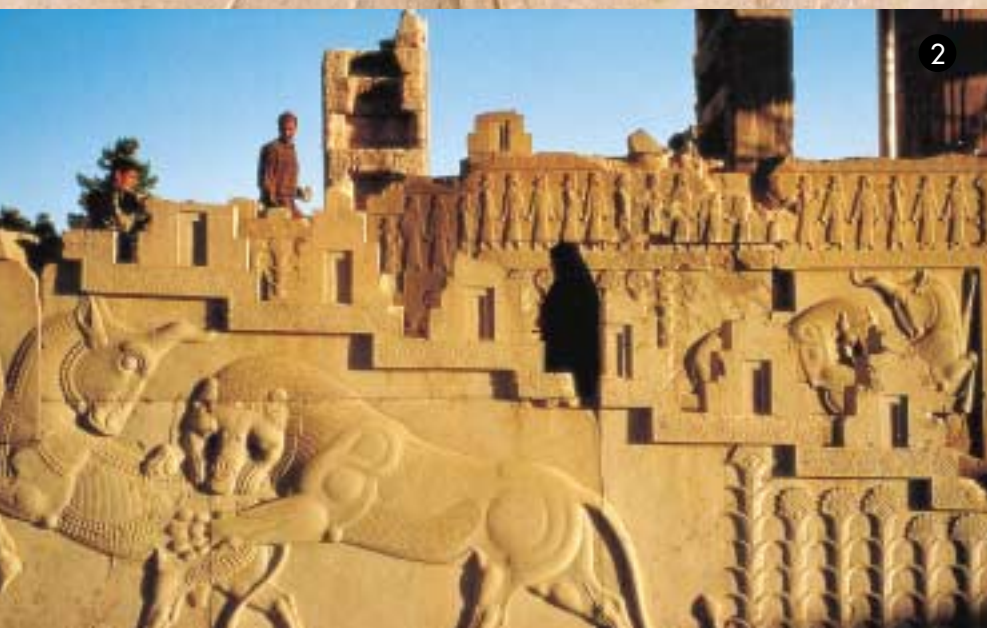


각국의 문화와 전통 존중

페르세폴리스는 가로 3백m, 세로 4백50m의 거대한 단구(호수나 바다의 연안에 생기는 계단 모양의 지형) 위에 세워졌으며 주변이 잘 보이는 라흐카트산에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 궁으로 들어가는 '만국의 문'이 있는데 매년 초 페르시아 제국에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들이 이 문을 통해 본궁으로 들어갔다.

페르세폴리스에는 여러 궁전들이 있다. 다리우스 궁전, 크세르크세스의 궁전, 아타르크세르크세스 궁전과 무덤, 하렘 등이 있고 중앙에 아파다나궁(사절단을 접견하던 곳)이 있으며, 요소 요소의 계단 벽에 많은 조각들이 있다. 알렉산더는 3백31년 다리우스를 격파한 후, 페르세폴리스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페르시아의 요충지임을 감안해 이곳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페르시아는 원래 이란 고원의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한 기마 민족이므로 자신이 점령한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 비해 문화 수준이 낮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복한 이들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했으며, 페르세폴리스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궁정은 경사가 완만한 언덕 위에 계단식으로 지었는데, 이는 바빌로니아식이고 궁성 정문 양옆에 설치한 라마수는 아시리아 식이다. 궁내의 넓은 공간에 설치한 열주(줄지어 늘어선 기둥)는 이집트에서 도입한 방식이다. 비록 각국의 다양한 기법을 조합해 만들었지만, 왕궁 전체로서는 높이 20m에 달하는 열주를 비롯해 장대함과 힘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들이 제국 시대의 문화적 요소를 나름대로 조화시켜 대제국의 위엄을 뽐내도록 했음은 물론이다.⁶⁾



- ① 페르세폴리스 궁전에 조각된 조공사절단의 행렬도.
- ② 접견실로 향하는 계단의 벽에 새겨진 조각. 우측상단에 1만 명 친위대원들이 정연하게 도열해 있다. 단 한명이라도 결원이 생길 경우 즉각적인 보충이 이뤄졌다.
- ③ 페르세폴리스 궁전 벽면의 조각으로, 각국의 조공사절단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 줄을 서있다. 각국 조공사절단의 앞에 안내인이 그들을 인도한다.
- ④ 라마수. 날개 달린 인면수신상으로, 궁전 문을 지키며 악령을 퇴치하는 수호신이다. 다리가 5개인 것이 특징이다.